특 집

대규모 목장의 사양 · 시설을 알아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체 브랜드로 시유 생산계획

○ 목장명
태신목장

○ 목장연혁
경기도 평택에서 68년부터 78년까지 약 10여년간

평택농장을 경영했으며 78년 7월에 현재의 부지로 옮겨 태신목장의 설립, 현재까지 27년동안 목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 목장주 소개

태신목장의 설립자 김태신(76)씨는 평안북도 삭주 출신으로 한국기업목장협회와 한국낙농협회가 통합 81년 설립된 한국낙농비육협회(본협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한달의 2/3이상을 목장현장에서 보내는 낙농업계의 원로며 현재 목장경영은 2세인 김영배전무(36)가 실무를 책임 운영하고 있다. 현 김영배전무는 서울대 농공학과를 졸업과 동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반추영양학을 전공한 낙농인이다.

○ 목장주소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산 47-7
전화 : (0457) 356-3154, 4516
FAX: (0458) 37-5342

○ 목장종사인원

총 종사인원은 전무포함 20인으로 55세기 정년이며 정년퇴직자는 야간경비원으로 채용하여 노후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10년이상 근무자가 8명정도로 장기 근속자가 많다.

○ 목장규모

총 목장규모는 40만평으로 이중 30만평은 사료포로 나머지는 축사, 도로,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사는 착유우사(123m×23m), 분만우사, 육성우사, 비육우사, 착유실, 관리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사는 운동장 포함 1만평정도로 구성돼 있다.

소사육두수는 우 600두, ♂ 150두로 이중 착유우 230두, 송아지 100여두, 나머지는 육성우이며 이중 100여두는 건유에 들어갔으며 숫놈은 전부 자체 비육해서 비육우로 출하된다.

○ 목장사양관리

가. 유질 및 산유량

현재 230두 착유우에서 1일 약 5,150kg(5,000ℓ)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질은 체세포 23~24만개, 일반세균 7,000마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10M/T의 원유생산, 2,000년까지 현재의 두당 평균 산유량 24kg을 30kg/1일 생산을 목표로 사육두수 증식과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육성우, 착유우 사양관리

육성우나 착유우 및 송아지를 철저히 군별 사육한다. 연령별 및 성별 사양관리뿐만 아니라 착유우도 유량에 따라 5개군으로 나누어 사양관리 한다.

특히 착유우는 TMR 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5개군으로 나누어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다. 질병예방 및 치료관리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관리한다. 과거에는 직원 수의사를 채용했었으나 효율적인면에서 떨어져 현재는 개업 수의사중 촉탁 수위사를 두어 발굽 및 유방염관리등에 만전을 기한다.

라. 사료급여 체계 및 작부체계

자체 TMR사료 제조시설을 갖춰 TMR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사일리지를 연중 급여하고 있다.

사료포 100정보중 70정보는 옥수수를 파종하여 사일리지를 담그며 나머지 30정보는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등 화본과 목초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재배한 옥수수는 연간 2,800M/T 정도의 사일리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의 저장을 위해 타워사일로 300M/T 용량 11기와 2,500M/T 용량의 벙커사일로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사료작물의 철저히 단모작체제를 유지하는데 연작했을때 보다 수확량이 150%정도 증가되었다고 한다.

또 목초는 1~3번초는 건초로 나머지는 사일리지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양질조사료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창업주의 생각에 의해 알팔파가 수입되기 전에는 경제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86년부터 4년여간 알팔파를 재배 급여하기도 했었다.

마. 분뇨처리 방법

우사의 구조가 후리스톨우사에 슬랏시스템(사진 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소의 분뇨는 우상 지하에 설치된 저장조에 저장된다.

이들 분뇨는 연2회 수거되는데 우사아래에 설치된 연못(사진 ②)에 자연 낙차에 의해 모여 수문을 열면 바로 사료포로 흘러가게 된다.(사진 ③)

창업주인 김태신회장에 의하면 효율적이며 동력을 사용않고 자연 낙차에 의해 분뇨를 이송키위해 중장비등을 이용해 사료작물포의 등고선 정리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형을 이용한 분뇨이동 처리방법을 택한 결과 태신목장에서 발생된 분뇨가 연2회(봄 사료작물, 옥수수 파종전과 가을 옥수수, 사료작물 수확후) 봄4일, 가을5일 총 9일간에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바. 착유시스템

목장의 모든 업무가 그렇듯 철저한 분업화의 구조를 갖고 있다. 착유업무도 2인 1조 2개조로 나누어 착유만 전문으로 담당한다. 착유시스템은 a사의 알프로 시스템 2×10 헤링본 착유설비(사진 ④)을 갖춘 착유실등 2개의 착유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착유만 전담하는 관계로 소의 능력과 습성을 알 수 있으며 기계조작등이 숙련되어 효과를 더하고 있다 한다.

사. 종축개량방법

'81년부터 수입정액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후보축 모두 자체 조달하고 있고 생산된 송아지들도 고능력우 경매행사에 몇두를 출품하는 것외에는 모두 사육하며 숫놈 역시 비육시켜 출하하고 있다.

또 몇년전에는 수정란이식사업도 시도했으나 성과가 미비해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후 2000년까지 현재의 두당 산유량 24kg을 30kg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목장에 대한 정책

국내의 대규모 목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일부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목장외의 순수한 낙농인이 운영하는 목장들은 규모가 큰만큼 그만큼 투자재원 및 운영경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소규모 목장들이 경영압박을 받을때는 큰 목장들의 고통은 더크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였으며 올해 처음 정부의 자금을 지원했다.

태신목장의 경우도 매년 시설투자가 되는데 지난해에도 착유시설 및 건물신축에 약 5억정도가 소요되어 목장수익 전무가 소요된 상태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큰 규모의 목장에도 정책적인 자금지원이 요청된다고 한다. 아울러 기자재 배합사료 또 조사료등에 부과되는 세금도 없어져야 한다.

○UR 개방화 이후의 목장대책

현재까지 대부분의 목장들이 그러하듯 비육우나 송아지 판매 수입으로 목장을 경영했었으나 앞으로 쇠고기등의 수입으로 목장의 수지여건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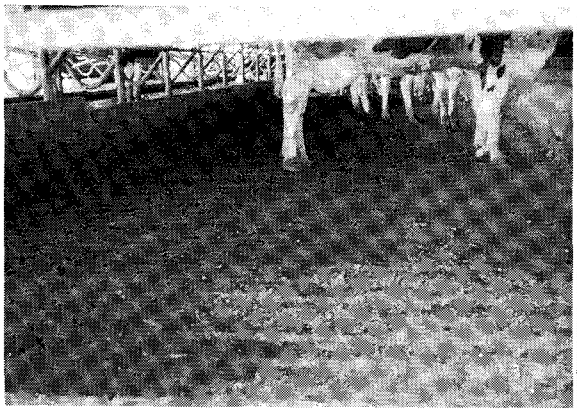
이에 태신목장은 우선 소의 산유량을 극대화시켜 유대 수입을 늘려나가며 또 지방화 및 자체브랜드 시대에 발맞추어 시유를 직접 생산 판매할 계획을 갖고 차근 차근 준비중이란다.

○낙농가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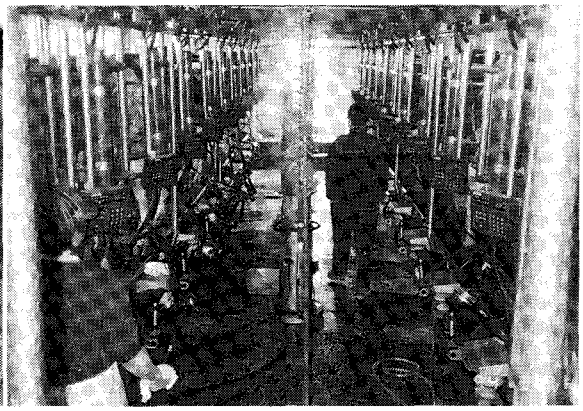
일반농가들이 대규모 목장을 하는 시각에 조금은 불만이라는 김영배 전무는 일반농가들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아닌 순수 낙농가인 만큼 경원시 하지 말고 사양관리 및 시설개선등에 대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이 교환돼야 한다고 말한다.

○목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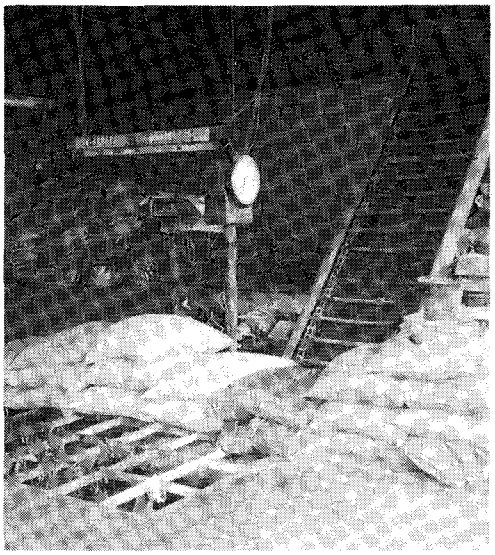
알팔파 재배, 수정란 이식사업등 낙농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태신목장은 대를 잇는 목장으로서 만약 수입개방과 수지악화로 인해 국내 목장이 모두 없어지는 사태가 오더라도 끝까지 낙농을 지켜 마지막 남는 목장이 되겠다는 2세 낙농인 김영배 전무의 말로서 태신목장의 소개를 마치려 한다.



후리스톨우사 슬랏시스템 바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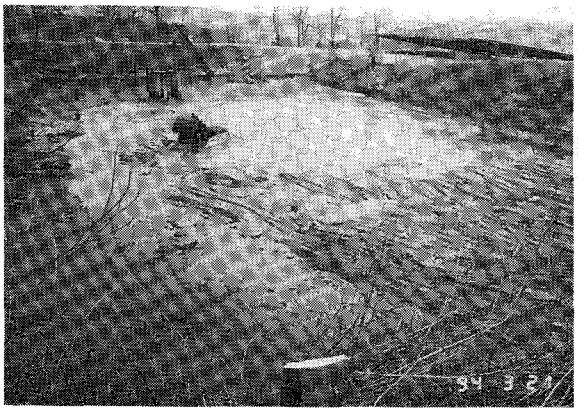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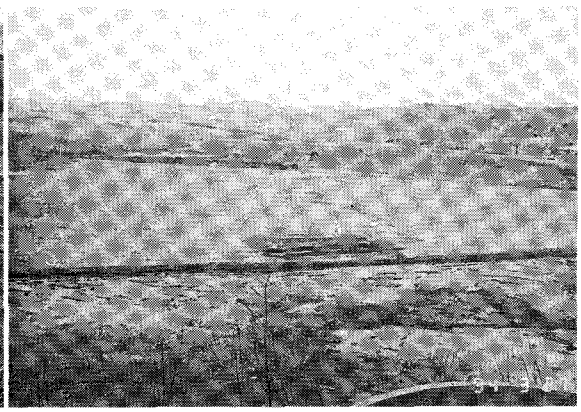


2인 1조, 2조로 운영되는 착유실, a사의 알프로시스템으로 착유실 직원은 착유만 전담하게 된다.



자체생산급여되고 있는
TMR사료 공장 모습

우사 분뇨구의 문을 열면 이곳에 분뇨가 모이게 된다.



연못의 분뇨구를 열면 지형에 의해 분뇨가 자연스럽게 사료포에 퍼지게 되며 트랙터를 이용 갈아엎는 작업을 하면 된다.